



청신경초종 수술 이후 어지럼증에 대한 침구 치료 1례

김연진¹ · 장지봉²

¹말레이시아 남방대학학원 중의약학원, ²말레이시아 남방대학학원 부속중의원

The Clinical Case Report by Acupuncture Treatment for Dizziness after Acoustic Neuroma Surgery

Yun-Jin Kim¹, Chee-Fong Teo²

¹Faculty of Chinese Medicine, Southern University College,
²Southern TCM Centre, Southern University College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clinical case report is to describe an acupuncture treatment for dizziness after acoustic neuroma surgery. **Methods :**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treatment for 4 months, 3 times per week. Duration for every treatment were 30 min by manual acupuncture with De Qi, which was designed to treat the dizziness and accompanied symptoms. Side-lying test was also used to evaluate dizziness and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HDRS) to evaluate depression. We evaluated the clinical result of the treatment by observing the patients symptoms. **Results :** After acupuncture treatments for 4 months, patient's Side-lying test reduced to 10 second, and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reduced 4 points. **Conclusions :** The clinical case treatment report may suggest that the acupuncture treatment can be a meaningful option for the intractable dizziness after acoustic neuroma surgery, and also able to reduced depression scale.

Key words : acupuncture, dizziness, acoustic neuroma, HDRS

서 론

청신경초종(Acoustic Neuroma)은 주로 제8번 뇌신경에서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두 개 내 종양의 약 8~10%정도를 차지하며 소뇌 교각부 종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종양으로 95%는 일측성이며 비유전적으로 발생한다¹⁾. 국소적으로 계속 자라면서 안면신경, 청신경 등의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종양의 크기에 따라 이명, 난청, 어지러움, 안면감각 이상, 안면신경마비 등의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게 된다²⁾. 치료는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추적관찰, 방사선치료, 수술치료가 있는데 조기 진단될 경우일수록 예후가 좋은 편이다^{3,4)}. 서양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내이미로, 시각기,

근육 및 관절의 심부 지각기와 기타의 감각기로부터 나오는 구심성 정보가 뇌중추에서 원활히 통합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원심성 지령이 안구 운동계와 척추 운동계에 관계하는 근긴장의 변화를 반사적으로 조절하는 평형반사회로의 혼란으로 부터 야기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⁵⁾. 어지럼증의 치료로는 급성기에는 심한 구역/구토, 현훈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Dimenhydrinate, diphenhydramine 등의 Antiserotonin 약물로 어지럼증과 구토를 완화시켜주지만 과도한 졸림등의 주요 부작용이 있다. Phenothiazine계통의 약물들은 구역/구토에 효과적이지만, Promethazine만이 전정성 현훈과 균형이상, 구토/구역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Received January 29, 2016, Revise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4, 2016

Corresponding author: **Yun-Jin Kim**

Faculty of Chinese Medicine, Southern University College, PTD 64888, 15KM, Jalan Skudai, Skudai, Johor 81300, Malaysia

Tel: +60127337661, Fax: +6075563306, E-mail: yjkim@sc.edu.my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Scopolamine 등은 심혈관계나 정신과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반복성 어지럼증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주의하게 사용되고 있다⁶⁾.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眩暈으로 目眩, 頭暈 이라 하며, 주요 病因으로는 情志所傷, 飲食所傷, 失血, 勞倦過度 등으로 風, 痰, 虛, 火 발생과 肝脾腎의 기능실조가 초래되므로 肝陽上亢, 氣血兩虛, 腎精不足, 濕痰中阻로 변증하거나, 風暈, 熱暈, 濕暈, 痰暈, 氣暈, 虛暈으로 분류하며, 病因에 근거하여 平肝瀾陽, 祛風化濕, 清熱化痰, 益氣補血, 溫補腎陽 등의 치법을 사용한다. 침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근 보완대체의학으로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침구 치료는 각종 질환에 대해 잠재적인 효과가 있는 대안적인 치료로 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해 기전을 밝히는 연구부터, 임상연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임상증례보고는 청신경초종으로 진단 받아 신경외과 수술치료 이후에 어지럼증이 발생한 경우로 이에 저자들은 단순 침구치료를 시행하고 치료효과와 환자의 우울증 척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대상

- 1) 환자: Lai OO
- 2) 성별 및 연령: 여/54세



Fig. 1. Acoustic indenting brainstem on L side.

3) 치료기간: 2015. 6. 10~10. 12

4) 진단명: 청신경초종(Acoustic Neuroma)

5) 주소증: 청신경초종 수술이후에 어지럼증

6) 과거력

(1) 2014년 9월 3일부터 청력감소와 어지럼증이 있어 근처 개인 병원에서 어지럼증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함.

(2) 2014년 9월 20일 관련 약물을 복용함에도 상기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KPJ Johor Specialist Hospital, Department of Neurosurgery를 방문하여 어지럼증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함.

(3) 이후 상기 처방 약물을 복용후 관련 증세가 호전되는듯 해 보이나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함. 2014년 10월 18일 상기 종합병원 전문의로 부터 뇌 촬영을 의뢰받아 2014년 10월 31일 뇌 촬영을 실시함.

(4) 2014년 10월 31일 뇌 촬영 이후 청신경초종으로 진단받음 2014년 11월 20일 청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음.

7) 초진소견

(1) **현병력:** 2015년 6월 10일에 내원함. 수술 이후 2015년 1월부터 간헐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함. 상기 종합병원 전문의로 부터 처방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으나, 어지럼증이 호전되지 않아 본 부속병원에 외래 진료를 함.

(2) **Side-lying 검사:** 내원 당시 어지러움으로 인해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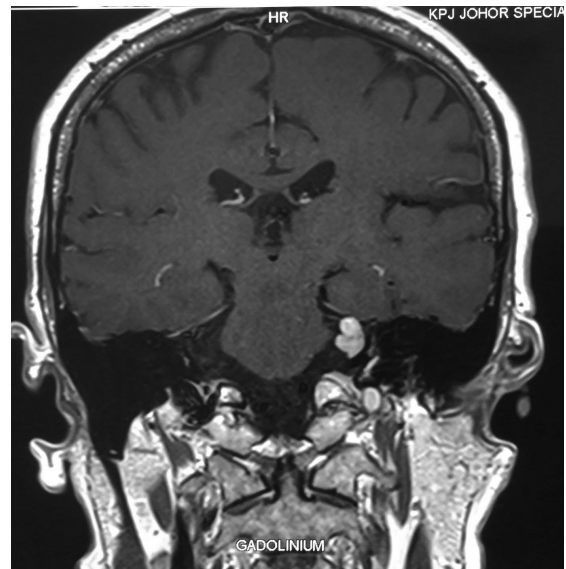


Fig. 2. A coronal view of another acoustic, again indenting brainstem on L side.

(3) **Hamilton 우울평가척도:** 내원 당시 상기 우울평가척도에서 21점으로 우울증상이 있었음.

(4) **뇌 영상 소견:** Fig. 1, 2를 참조.

8) 환자의 전신 소견

(1) **시각 및 청각:** 수술 이후에 정상

(2) **기력:** 정상

(2) **대변:** 1~2회/일, 변이 약간 묽은 편

(3) **소변:** 7~8회/일, 특이사항 없음

(4) **식욕:** 대체로 정상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 잘 안됨.

(5) **구토:**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하면 구역이나 구토가 있음.

(6) **우울증:** 종양으로 진단받고 나서 우울한 증상이 있음.

(7) **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주 깨고, 예민한 편임.

(8) **설태:** 담홍색, 소량의 설태

(9) **맥상:** 細沈

9) 검사소견

(1) **혈력징후:** 혈압 120/72 mmHg, 맥박 75회/min, 호흡 21회/min, 체온 36.2°C

(2) **Chest PA:** X-ray상 정상소견

(3) **임상병리:** 정상소견

2. 치료방법 및 임상경과

1) **치료방법:** 단순 침구치료를 하였으며, 기본적인 주소증 및 주 증상외의 다른 불편감에 대한 호전을 목표로 진행 되었다. 종양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는 Hamilton 우울평가척도(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HDRS)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관적 우울 정도를 평가하였다.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복용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모든 어지럼증 관련 처방 약물은 치료기간동안 복용하지 않았다.

2) **침치료:** 외래 진료 기간 동안 직경 0.3 mm, 길이 40 mm인 일회용 스테인레스 호침(Jia Jian Medical Sdn. Bnd, 2015, 중국제조)을 사용하였다. 치료혈은 百會(GV20), 太衝(LR3), 太陽(EX-HN5), 血海(SP10), 氣海(CV6), 合谷(LI4), 足三里(ST36), 內關(PC6), 解溪(ST41)를 취혈하여 양측에 直刺하고 깊이는 10~20 mm로 平補平瀉法하였다. 百會의 경우 平刺로 強間과 后頂방향으로 捻轉瀉法하였다. 환자가 得氣感이 느껴지도록 한 후 30분 留鍼하였으며 치료 기간 동안 일주일에 3회 시행하였다.

3) 치료경과

(1) **어지럼증:** 내원 당시 어지러움으로 인해 Side-lying test를 시행할 수 없었고, 혼자 걸어나가기 부자연스러웠다. 침치료를 실시한 4달 이후에는 Side-lying test를 시행하여도 10초 내외의 짧

은 안진 형태로 호전되었고,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 치료 이후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2) **Hamilton 우울평가척도:** 상기 우울평가척도는 관찰자 평가 척도로서 광범위한 우울증상과 이에 관련된 정신병리적 증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우울증의 신체적 증상을 강조하여 심각한 중증 우울증 환자의 경험변화에 민감한것으로 우울증 진단에 사용되는 척도다. 총점은 0점에서 50점 사이이고 18점을 절단점수로 사용하고 우울증상의 심도를 평가한다^{7,8)}. 내원 당시 상기 우울평가척도에서 21점으로 우울증상이 있었으나, 치료 이후에는 우울평가척도가 17점으로 우울증 증상이 유의미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일부 증상이 경감하였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고 찰

어지럼증은 어찢어찢하거나 돌아가는 느낌등의 부적절한 감각 상태와 두통 혹은 흐릿함 등의 이상감각을 동반하는 증상으로 현훈, 균형장애, 심인성 어지럼증 등을 비롯해 기타 어지럼증을 포괄하는 용어이다⁹⁾. 또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신체적 불균형으로 청신경초종의 경우 청각소실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증세이나 뇌 촬영을 하기 전까지는 진단 및 확인이 어렵고 오진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상기 환자의 치험을 통하여 청신경초종 수술 후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동반한 환자에게 침치료를 시행하여 유효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특정 질환에 국한된 1례의 임상병례 보고이지만 이를 통하여 청신경초종 환자의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합병증 및 후유증 관련 회복 및 재활치료가 있어 침구치료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군, 대조군 설정 및 맹검법등의 연구방법을 실시할 수 없었던 임상병례 보고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된다. 향후 관련 환자의 임상 증례와 대조군 등의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종양 환자들의 외과적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우울증에 대해서도 침구치료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

종양환자들의 다양한 항암치료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합병증 혹은 이차적인 질환들에서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결 론

2015년 6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남방대학학원

부속 중의원에 외래 진료한 청신경초종 환자의 수술 이후 나타난 어지럼증 환자 1례에 대한 임상 병례보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본 증례 환자에게 침구치료가 환자의 수술 이후 나타난 어지럼증의 감소가 있었다. Side-lying 검사에서 초진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침구 치료 이후에 10초내외의 짧은 안진상태로 호전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본 증례 환자에게 침치료가 환자의 우울평가척도에서 치료 이전 21점 보다 4점 낮아진 17점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대해 유의미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일부 증상이 경감하였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종양 환자로서의 우울 증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References

- Roswell E, Dilys P. Summary: vestibular schwannomas (acoustic neuroma).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 Conference Proceedings. Neurosurgery 1992 ; 30 : 962-964.
- Jeong SD, Lee HJ, Park HJ, et al. Clinical Study of 1 Case of Facial Paralysis after Acoustic Neuroma Surgery using Needle-Embedding Therapy.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2 ; 36(6) : 976-979.
- Jonathan R. Newton, Muhammad Shakee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reening in acoustic neuroma. American Journal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Medicine and Surgery 2010 ; 31 : 217-220.
- Aquimedes Cavalcante Cardoso. Acoustic Neuroma. Vestibular Schwannoma. Surgical Results on 240 patients operated on dorsal decubitus position. Arq Neuropsiquiatr 2007 ; 65(3-A) : 605-609.
- Lee TK, Sung KB. Diagnosis of acute spontaneous vertigo. Journal of Korean Neurology Association 2007 ; 25s(2) : 47-53.
- Lee TK, Sung KB. Clinical approach to the patient with dizziness. Journal of Korean Neurology Association 2008 ; 26s(3) : 490-497.
- Kim JS, Ryu JA, Lee JB, et al. Risk Factors and Prevalence of Depression in the Patients of Schizophrenia.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2007 ; 24(2) : 296-303.
- Kim CY, Goh J, Ro E. Item characteristics of the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Self Report Invento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2 ; 41(5) : 905-911.
- Oh JM, Eom TM, Choi KE, et al. Study of the Patients with Dizziness who visited the Korean Medicine Hospital.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Korean Medicine 2015 ; 29(5) : 378-385.